

NEWS LETTER

2020년 12월 14일 Vol. 393

동국대학교의료원, BTN불교TV와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지난 12월 1일 BTN불교TV와 대외홍보 강화 및 의료를 통한 불법홍포를 실천하고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BTN붓다회, BTN불국토상조회원 등 BTN불교TV 방송 포교후원 회원 12만여 명이 동국대학교의료원 산하 기관에서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동국대학교 조성민 의료원장은 “방송포교에 앞장서온 BTN불교TV와 동국대학교의료원이 서로 협력해 스님과 불자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BTN 구본일 대표이사는 “불교계에서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최다 시청자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BTN불교TV가 방송포교후원 회원들에게 의료혜택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병고로 힘들어 하는 불자들이 동국대학교의료원에서 약사여래의 가피를 받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신경과 김동억 교수, 새 항응고제 중단 시 첫 1~3일간 더 심한 혈전증 유발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발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 김동억 교수 연구팀은 새 항응고제(NOAC) 복용을 중단한 후 첫 1~3일 동안 혈액 응고가 과 촉진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동억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밝힌 두 가지, 즉 새 항응고제 중단으로 인한 일시적 혈액 응고 과 촉진과 이 현상이 아스피린 1회 투여로 예방될 수 있음을 환자에서 검증하는 대규모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와 더불어 불과 며칠이라고 방심하지 말고 새 항응고제 복용을 중단하는 게 꼭 필요한지 진료지침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중견연구, 글로벌연구실)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고 동국대 박사 과정 김지원 학생이 1저자로 참여했으며, 신경학분야 최고 권위지인 Annals of Neurology(5년 평균 영향력 지수 9.7)에 발표됐다.

2020년 한방병원 의료기관 인증 자체조사 실시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지난 11월 24일 의료기관 인증 자체조사를 실시했다. 의료기관인증 자체조사는 인증 획득 후 병원 자체적으로 환자 안전과 질 향상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자체조사는 9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해 서류 검토와 현장 방문을 통한 시스템 추적조사 및 개별 추적조사가 시행됐으며 모든 항목에서 대부분 잘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민상연 진료부장은 “의료기관 인증 자체조사는 우리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잘 시행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가짐을 새롭고, 굳건히 하는 과정이다”며 “자체조사를 위해 성실하게 준비해주신 교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시행 예정인 중간 현장 조사에도 모든 교직원들이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방병원 의료기관인증 중간현장조사는 2021년 3월에서 11월 중 사전 통보를 통해 시행 될 예정이다.

알 리 미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건강증진센터 2020년 프로모션 시행

건강증진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직원 및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해 특별한 혜택의 건강검진 프로모션을 시행합니다.

1. 기간 : 2020년 12월 21일 ~ 2021년 3월 31일까지(검진일 기준)
2. 대상

의료원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본원 교원, 직원, 계약직 직원, 협력업체 관리자, 직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자)
	직계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협력업체 직원 포함)
	형제, 자매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협력업체 직원 제외)
법인, 대학, 전산원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동국대학교 소속 재직중인 정규 교직원
	직계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산하학교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